

충현의 만나

이 달의 말씀 · 마태복음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7

1996

가정예배 · 구역예배 안내서

충현의 만나

이 달의 말씀 · 마태복음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기도제목

1.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헌신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담임목사가 속히 부임될 수 있도록
2.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교회가 되도록
3. 김창인 원로목사님의 건강과 영력 넘치는 사역을 위하여
4. 모든 교역자들과 당회원들의 성령 충만을 위하여
5. 구역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구역 조직을 통하여 교구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되도록
6. 교회 모든 위원회와 부서들의 질적, 영적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7. 민족 복음화와 복음으로 인한 남북통일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8. 나라와 민족과 교단과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을 위하여



충현의 만나

1996년 7월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간행물입니다.

마태복음 서론

마태가 그의 복음서를 기록한 주요 목적은 유대인 독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의 메시아이심을 입증하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마태는 무엇보다도 구약 성경을 빈번히 인용함으로써 예수님이 그의 삶과 사역을 통해 어떻게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셨는가를 보여주었다.

또한 마태는 예수님의 혈통을 아브라함으로부터 밝히고 있으며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예수님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더 나아가 마태는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 사실성을 은폐시키려는 유대인들의 시도에 대항하여 부활의 사실성을 힘주어 강조하였다.

마태는 옛 계약과 새 계약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속계획에서 차지하는 이중적인 지위를 조명해 준다. 특별히 하나님의 옛 백성은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빼앗길 것이며, 그 특권은 이제 새 백성에게로 넘겨질 것이라는 면에서 교회를 강조하고 있다.

마태복음이 기록된 때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은 것을 볼 때 주후 70년 경으로 추정한다. 저작 장소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전통적 견해는 본서에 유대적 색채가 짙은 점과 유대의 관습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점을 볼 때 팔레스타인을 저작 장소로 추정한다.

『...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11:12)

천국을 얻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때를 잘 분별하는 지혜를 지녀야 합니다. 비록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들에게 의해 메시아로 오해받을 만큼 뛰어난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서 공생애를 시작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그는 자신의 역할을 마감하고 사람들의 이목 밖으로 사라져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에게 허락된 역할과 때를 잘 분별하여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히 되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천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천국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먼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천국은 어떠한 강력한 힘을 가진 자에게 강탈당한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힘이란 믿음이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는 '침노하는 자'입니다. 즉 믿음이 있는 용기있는 자, 강한 자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천국을 위해서 노력과 지혜를 아끼지 않고 용기있고 강하게 나아갑니다. 즉 농부가 보화를 발견하고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주인에게서 그 밭을 사는 것과 같고 진주장사가 가장 귀한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것과 같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은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 가치를 알고 있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불타는 열의와 힘을 갖고 있는 자가 천국을 차지합니다.

▶ 기도 / 천국의 일꾼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열정과 열의를 다하여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11:28)

본절에서는 주님께서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진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자비로운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가 무거운 인생의 짐을 해결받으며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고하고'란 말은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자기에게 부과된 일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이를 이루지 못하여 피로가 누적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다'라는 말은 자신의 원하지도 않는데 마치 소나 말처럼 무거운 짐에 눌러 피곤하고 지친 상태를 가리킵니다. 본래 하나님의 말씀은 종이 꿀보다도 더 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잡다한 율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거운 짐에 시달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비단 율법의 짐에 눌린 사람뿐만 아니라 쉬고 싶어도 쉴 수 없어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주님께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만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신앙의 짐에 눌러서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면 당연히 신앙생활이 형식화되고 의식화될 때 우리에게 직분은 짐이 되고 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은 결코 우리의 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자 허락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였으나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쓰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부르셔서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늘도 응답함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성도가 됩시다.

▶ 기도 / 오늘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김창인 원로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사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소서.

3

(수) 참된 안식일

찬송 / 57장 본문 / 마 12:1-21

⁷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12:8)

참되게 안식일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걸어오다 시장하여 밀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범했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대원리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회당에 올라가실 때 그곳에 손마른 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안식을 지키는 원리입니다.

안식이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날은 안식일의 주인되신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중심으로 지켜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힘써 행해야 되는 날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주일성수하는 것입니까? 안식일의 중심인 예수님을 기억하며 온전히 주를 섬기며 헌신, 봉사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안식일의 주인되신 예수님께서 주일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성수를 문자적인 면에 붙잡혀서 형식적으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맡겨진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일하는 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 기도 /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자들이 되고, 참되게 주일성수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양무리들을 주님의 뜻대로 양육할 담임목사님을 하루 속히 보내주소서.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12:37)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 내시고 나니 무리들이 메시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았다고 억지 소리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내면 악령들이 서로 싸우는 것이 되니 말이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령을 훼방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짓고 있으므로 영원히 멸망할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적 능력과 은혜를 의도적으로 악하게 거부하는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런 악한 말을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이 그러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지적하셨습니다. 실과를 보아야 나무를 알듯이 바리새인들의 말을 보면 그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을 하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는 것입니다. 즉 '말은 마음의 열매'라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말을 가지고 그 사람을 심판할 날이 올 것입니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말로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말은 마음이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말을 잘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언어습관이나 말의 진실성 여부를 명철히 돌아보고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말은 마음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을 하여 우리의 마음이 합당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나아가고 있음을 하나님께 보여 드려야겠습니다.

▶ 기도 / 한 마음을 주시고 선한 말을 하게 하소서. 충현교회가 세상을 향해 진정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12:39)

예수님의 ‘메시아 표적’을 방금 보고서도 또다시 표적을 보여달라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고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악한 세대인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요나가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고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했으므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스바 여왕보다도 못한 그들의 교만을 지적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표적을 행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을 시험하는 악인들에게 속지 않으셨습니다. 이를테면 그들은 ‘내게 있는 귀신도 쫓아내보시지’ 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러나 귀신이 쫓겨 나간단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임마누엘이 표적이 있어야 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 임마누엘의 표적을 사모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호기심으로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은혜를 사모함이 바르게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과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믿고 임마누엘 하신 표적을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에서 악한 생각들이 떠나가고 빈 상태로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으로 채워져서 임마누엘의 표적이 더욱 충만하기를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표적을, 성령충만을 간구합니다.

▶ 기도 / 최고의 표적을 이미 주신 것을 감사하고, 성령님으로 인한 임마누엘의 표적을 감사하게 하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소서.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결실하여...』(13:23)

예수님께서 씨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땅에, 즉 마음에 뿌려집니다. 그러나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먹어 버리는 것같이, 깨닫지 못하면 사단이 씨앗을 빼앗아 가버리므로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밭과 같은 마음은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즉시 기쁨으로 받아 들입니다. 그런데 뿌리가 없어서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면 곧 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집을 모래 위에 세운 것 같아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곧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마 7:24-27). 그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치 아니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밭 같은 마음의 소유자는 말씀을 듣고 깨달으나 순종하지 않아서 결실치 못하는 것입니다.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도 결실치 못하는데, 그것은 가시가 기운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때문에 불순종하여 결실치 못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여 결실치 못하는 것도 안타깝지만, 듣고 깨달았는데도 결실치 못하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이것은 바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려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해야 합니다.(시 119:9,11)

우리들도 말씀을 많이 들으나 결실치 못하므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맛보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요? 돌밭이나 가시밭은 바로 건물로 비유하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것입니다. 듣고 깨달았으면 즉시 순종해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것이며,(요 14:21) 환난과 핍박과 세상의 유혹이 와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승리, 결실할 것입니다.

▶ 기도 / 깨달은 말씀을 암송, 묵상하며 순종하여 결실케 하소서. 당회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교회를 사랑의 마음으로 돌아보게 하소서.

찬송 / 345장 본문 / 마 13:24-43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13:32)

예수님은 가라지의 비유와 겨자씨 비유, 그리고 누룩의 비유를 들어 주셨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뿌리셨습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가 가라지도 뿌리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뽑아 버리지 말고 추수 때까지 가만히 두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해서 그런 것입니다. 추수 때가 되면 주님께서 추수꾼들에게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나서, 나중에 곡식은 모아 곳간에 놓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이는 지역교회에도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별이 어려움도 있고 또 실수하여 다른 성도들이 시험들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가라지 공포증'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은 또한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미미해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 확장되고 성장하고 성숙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믿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 날이 되면 예수님이 의를 전가받은 의인들이 영화롭게 되어 천국에서 빛날 것입니다.

오늘 맥추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들은 알곡으로 추수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합시다. 또한 교회가 불완전해도 실망하지 맙시다.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으므로 가라지 때문에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날에는 밝혀질 것이고 천국은 또한 겨자씨나 누룩 같은 성장과 확장과 성숙이 필연적으로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 기도 / 교회의 불완전함이 보여도 실망치 말고 믿음과 소망으로 전진하여 알곡으로 성장하게 하소서. 교회의 모든 직원들이 선한 청지기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13:44)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더러 땅 속에서 뜻밖의 보물을 발굴해 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에다 비유하였는데 그 땅 속의 보화를 우리의 것으로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 감추인 보화는 찾으려고 힘써야 합니다. 땅 속 깊이 감추인 보화는 좀처럼 누구의 눈에 띄이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이 바로 그러합니다. 즉 감추인 보화가 그렇듯이 천국은 모든 사람의 눈에서 벗어나 감추어져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 가까이에 있으나 그들이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사람의 눈에 띄이겠습니까? 이는 마치 보화를 찾는 자만이 발견할 수 있듯이 천국을 찾는 자에게만 발견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진정 천국의 보화를 찾기 위해 진력하고 계십니까?

둘째, 자기 소유를 팔아 그 보화의 땅을 사들여야 합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먼저 자기 것을 다 팔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 밭을 사들이게 되었습니다. 자기 것을 다 팔아야만 저 밭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견한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라도 파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천국을 소유하는 데도 이같은 태도가 요청됩니다. 진정 천국의 복음을 듣고 그 사실을 안 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거기에 덧붙여 그 깨달은 천국 복음을 자신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세상적 쾌락과 열락을 과감히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의 선물을 받아들이야 합니다.(엡 2:8,9) 그런 까닭에 주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대가를 기꺼이 지불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 기도 / 나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 놓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교구일꾼들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봉사하게 하소서.

“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 ” (14:10,11)

본문에는 세레 요한이 헤롯의 칼에 죽은 사건이 나옵니다. 세레 요한의 죽음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습니까?

첫째, 악인 헤롯에게 당한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세레 요한의 깨끗한 양심과 정직성을 추호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요 순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레 요한을 죽인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의 이복 동생인 빌립 1세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인 세기적인 패륜아입니다. 이렇게 보면 세레 요한의 죽음은 악인에게 당한 죽음이었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한 죽음이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헤롯의 불륜을 세레 요한이 통렬하게 공박한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4절). 헤롯은 세레 요한의 공박을 받고 나서 회개하기는 커녕 그를 포박하여 감옥에 던져 넣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세레 요한의 목을 잘라 재판에 받쳐 들고 주위의 행악자들과 함께 승리의 쾌재를 불렀습니다. 왜 하나님은 저런 참혹한 일들을 조금도 말리지 않고 방관하는 태도만 취하셨을까요? 이는 의인이 죄인 대신 형벌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실로 세레 요한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 죽을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했던 것입니다.

작은 고난이나 큰 고난이나 할 것 없이 죄없이 당하는 일은 다같이 대속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자녀들에게 불필요한 일을 허락치 않으시는 분임을 확실히 알아야 하겠습니까.

▶ 기도 / 이유없이, 죄없이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원망하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찾아 기도하고 진행하게 하소서.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오천 명이나 되었다』(14:21)

예수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오천 명 이상을 먹이신 일은 그분이 행하신 기적들 가운데 너무나 잘 알려진 유명한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셨기에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겠습니까?

첫째, 예수님은 창조자이셨습니다.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는 어린아이 한 끼의 음식밖에 안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빈 들에 모여 있던 사람들은 성인 남자들만 해도 오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오병이어로 그들을 다 배불리 먹이고도 열두 광주리나 남게 만드셨습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창조주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실로 창조란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또한 절망의 순간에서 희망을 이끌어 내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참된 창조자였습니다.(요 1:3)

둘째,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셨습니다. 제자들이 무리를 마을로 보내자고 청하자 예수님께서서는 뜻밖에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오천 명 이상을 먹이고도 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분에게 사랑의 힘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주린 자들을 먹이고 싶은 사랑, 이 사랑의 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말고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 자신의 길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 기도 / 창조주이시며 사랑의 주이신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의 모든 길을 그분께 맡기게 하소서. 찬양대원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며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14:27)

어느 날 저녁에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을 다 배에 태워 건너편 게네사렛 땅으로 건너가도록 명하셨고 당신은 기도하기 위해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탄 배가 육지를 떠나 호수 중간쯤 이르렀을 때에 느닷없는 역풍을 만나 사경의 위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의 현장으로 예수님께서서는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떤 때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 찾아오시는 것일까요?

첫째, 주님의 때에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저들이 곤란을 당하자마자 곧바로 찾아오시지 않았습시다. 자구책도 별도리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제자들이 마음으로 주님의 도움을 간청할 때 주님은 그들을 찾아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히 당신만을 의지하는 제자들에게 친히 작성하신 정확한 시간에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때가 차매”(갈 4:4) 당신의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던 하나님의 경륜을 상기하면서 항상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조악한 환경 중에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이 역풍에 시달리면서 혹심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그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날도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고 찾아오십니다. 아무리 처절하고 열악한 환경 중에 있더라도 주님만은 기필코 우리를 찾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우리의 여건이 아무리 어렵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맙시다. 그리고 능히 그 어려움 속에 찾아오셔서 구출해 주실 주님을 끝까지 의지합시다.

▶ 기도 /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만은 내 편이라는 것을 믿고 항상 승리하게 하소서. 교회학교 교사들이 일주일 동안 말씀을 잘 준비하여 학생들과 충만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소서.

“...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15:20)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제자들이 식사를 하기 전에 장로들의 유전을 좇아 손을 씻지 않는 모습을 보고 정죄하면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책망하셨습니다. 율법의 목적과 정신을 망각한 채 형식적인 세부 규칙들을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세밀하게 규정했던 소위 ‘장로들의 유전’의 허상을 구체적인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지적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지켜온 장로의 유전이라는 의식에 얽매어 더 큰 죄악을 범하였고, 남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어리석음을 범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또 다른 경건이라는 미명하에 법을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본문은 인간의 고정관념과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잘 보여 줍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고정적인 편견을 들으시고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고 하셨습니다. 어떠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변에 있는 성도들의 실수와 잘못을 무조건 정죄하고 비난하지 말고 이해하고 관용해 주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먼저 변화받아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즉 우리는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증거, 횡방 등과 같은 더럽고 추잡한 것을 벗어나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죄악들은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내어 거룩한 마음, 청결한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 기도 / 편견과 고정관념을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이웃에게 자비와 관용과 사랑을 베풀어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각 교구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열심으로 이웃을 보살필 수 있게 하소서.

7 병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 (15:31)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베푸셨습니다. 그 기적을 베푸심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의 메시아임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가시다가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님께 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외치되 예수님은 못들은 척 외면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여인이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면서 도와달라고 간구합니다. 그 여인의 애타는 호소를 들은 예수님은 그 여인을 개 취급을 하면서 고쳐줄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호소합니다. 이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네 믿음이 크도다”라는 칭찬을 듣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여인의 집요한 요구와 겸허한 믿음이 아주 돋보입니다. 은혜의 부스러기만이라도 얻어먹으려한 여인의 절박한 호소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스러기 은혜가 아니라 그 아들의 생명을 받쳐 구원해주는 온전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복된 자들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우리의 태도에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런 구원의 은총과 생활 속에서 많은 기적과 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 기도 /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항상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가정과 구역이 되게 하소서. 남녀전도회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일곱 개와 작은 생선 두어...』(15:34)

인간들은 육신의 떡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생명의 떡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육신의 떡문제만 해결되면 행복을 다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육신의 떡의 문제에만 집중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육신의 떡으로는 행복과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언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 지역에서 떡 일곱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4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있어서나 이방인에게 있어서나 동일하게 '생명의 떡'을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보여 줍니다. 이런 기적을 행하심은 단순히 인간의 배고픔만을 해결해 주심이 아니라 자신이 바로 생명의 떡이요, 하늘의 양식인 것을 교훈해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현재 몇 개의 떡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떡이 예수님의 손에 사용될 때 놀라운 기적과 복을 받을 수 있음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기적을 행하셔서 4천명이 다 배불리 먹고 난 후에 남은 조각을 모아 바구니에 담으니 일곱 광주리가 가득차게 거두었습니다. 이것은 풍성하게 주신 것을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말 것을 간접적으로 교훈해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풍성한 물질의 축복을 주신 것을 함부로 낭비하거나 좋은 음식을 쓰레기로 버리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 기도 / 육신의 떡과 영적인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더욱 의지하게 하소서. 이 나라에 정의와 도덕이 살아나게 하소서.

『...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 줄 ...』(16:4)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역에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 내시는 기적을 행하셨지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표적을 보면 볼수록 마음이 더 강박해지고, 믿을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의 표적을 의심 많은 도마에게 보여준 후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요 20:29)라고 하셨습니다. 지나치게 말씀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 표적만을 구하는 신앙으로 추구하면 위험한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도 영적인 소경이 되어 그가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이심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도리어 자신들의 욕구와 경이감을 맛보기 위해 예수님께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들이 표적을 구함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 위함이 아니라 그의 약점을 잡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그들을 향하여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 줄 표적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대속을 위해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재삼 확정하는 가장 큰 표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야만 행할 수 있는 유일한 표적입니다.

이 시간 요나의 표적을 행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시다.

▶ 기도 /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직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웃에게 전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모든 위정자들이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국정에 임하게 하소서.

『...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16:16) 크부도 16:10

본문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의 공생애 사역을 중간 결산하시면서, 머지 않아 닥칠 십자가의 수난에 대비하여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시작 하심을 보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 다른 제자들은 일반 사람들의 의견과 별로 다를 바가 없었으나 유독 베드로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는 베드로의 이같은 신앙고백을 교회의 기초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마치 베드로 개인에게 면죄권이 부여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본문에서 깨닫게 되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고백에 따라 구원과 영생, 혹은 심판과 멸망이 각각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의 신앙고백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우리나라 오는 자신의 삶을 통해 입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성도들이 지닌 믿음은 인간 의지의 산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결과입니다.(엡 2:8) 비록 베드로가 훌륭한 신앙고백을 했을지라도 그것은 그의 지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구원을 스스로 자랑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셋째, 천국 열쇠를 가진 성도들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신령한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성도가 이 땅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부지런히 전파한다면 천국에서 그 상급이 클 것입니다.

▶ 기도 / 우리의 신앙고백이 분명하게 하여 주시고 그 고백과 동일한 삶이 이루어지도록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새롭게 하소서. 장애인들에게 더욱 복음이 전파되어 구원의 참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16:21)

본문에서 예수님께서서는 구체적으로 십자가의 수난을 예고하십니다. 이는 제자들을 혼란과 당혹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예수께서 지상의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나서서 예수님께서 수난당하시는 것을 자신들이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22절)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방관만 하지 않겠다고 나선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제자들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뒤를 따르도록 교훈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 자신의 수난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을 때에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위로하고 아울러 제자들이 장차 어떠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입니다. 이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도들은 현실적인 축복과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육신의 병을 고치고 물질적인 복을 누리겠다는 생각에만 사로잡힌 자가 있다면, 그는 틀림 없이 실망하여 결국 믿음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마 19:22) 둘째, 육신의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훌륭한 신앙고백으로 예수님의 칭찬을 한 몸에 받았던 베드로가 불과 얼마 후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는 주님의 엄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자가 됩시다.

▶ 기도 / 세상을 쫓아가다가 그것이 망할 때 같이 망하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보배인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소서. 서만수 선교사(인도네시아)의 질병(신장)을 속히 낫게 하시어 복음 사역에 더욱 충성하게 하소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17:5)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되셨을 때였습니다. 그곳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이적적인 능력을 많이 행한 선지자 엘리야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은 무엇을 내포하고 있을까요? 첫째,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되심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도 하신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아들임을 밝혀 주셨습니다. 주를 따르는 사람들은 먼저 그분이 누구인지를 올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대상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않고는 그분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요 4:14)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의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꼭 들어야 하는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 기도 /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되심을 믿는 모든 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육호기 선교사(독일)를 통해 배포되는 러시아어 성경을 통해 러시아에 복음의 참 씨앗이 심겨지게 하소서.

『...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17:20)

교육열이 대단한 우리 나라 사람들은 자기 자녀가 꼭 대학에 합격하고 졸업까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입시철이 되면 어떤 학생들은 치열한 경쟁에 승리하여 합격하고 어떤 학생은 실패의 쓴 잔을 마시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 우리는 제자들이 실패의 쓴 잔을 들이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데리고 온 간질병에 걸린 아들을 제자들은 고쳐주지 못했고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고쳐 주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워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 내지 못하였나이까?” 이에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봅시다.

첫째, 믿음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적다는 것은 믿음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부족한 연고로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 다녔으면서도 간질병 걸린 아이 하나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원인이 믿음이 적은 데 있다는 것을 알고 큰 믿음을 소유하도록 노력합니다.

둘째,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간질병에 걸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이유를 묻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막 9:29)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러므로 기도에 힘씀으로 능력을 소유하고, 세상의 모든 죄악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 기도 / 실패의 원인을 바르게 깨닫고 기도와 믿음의 능력으로 성공적인 삶을 사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이준교 선교사(이집트)가 출강하는 복음주의신학교를 통해 좋은 사역자들이 배출되게 하소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 (18:4)

본문은 예수님께서 천국 시민들이 가져야 할 귀중한 삶의 모범을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집니다.

첫째로, 1-4절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수하고 겸손해야 할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로, 5-9절 말씀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아무런 힘도 없고 미약한 존재들인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결코 무시하거나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강조하셨습니다. 셋째로, 10-14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라도 결단코 잊어 버리시는 법이 없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나타난 어린아이가 육신적인 나이가 어린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께서서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과 생명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주님께서 강조하신 어린아이의 의미 중에서 말씀에 대한 순결성과 단순성, 그리고 철저한 신뢰성 등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어린이적인 모습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들이기에 겸손히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로 세움을 받는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 기도 / 우리 모두가 더욱 겸손하여 천국에서 큰 자로 세움받게 하소서.
김주경 선교사(이스라엘)의 사역을 통해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야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소서.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18:35)

본문은 예수님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용서’에 대한 귀한 교훈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여쭙었습니다.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 얼마나 용서해 주면 됩니까?” 그리고 그는 자신의 율법적인 기준(당시의 랍비들은 세 번까지만 용서하면 그 의무를 다했다고 가르쳤다)을 가지고 “실제적으로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일곱 번까지는 용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 물론 이 말씀은 산술적인 계산으로 490번이 한계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무한수를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무자비한 종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일만 달란트와 백 데나리온의 비유는 대단히 상징적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비유는 대단히 실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로 다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어 우리의 모든 죄악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생활을 돌아보면, 우리는 내가 입은 조그마한 피해도 쉽게 간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은 주님 앞에서 대단히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고 영생의 축복도 받았는데, 그 사랑과 은혜에 비하면 너무나 사소한 문제에 불과한 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 중심에서 우리나오는 진정한 심령으로 우리의 형제와 이웃을 향한 용서의 자세를 회복해야 합니다.

▶ 기도 / 말씀의 능력으로 진정한 용서를 실천하게 하소서. 안석렬 선교사(수리남)의 사역을 통해 잘못된 결혼풍습(결혼 전 동거)이 근절되며 바른 결혼풍습이 자리잡게 하소서.

7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아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 (19:3)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께서서는 그리 길지도 않은 생애 속에서 참으로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본문에 나타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였던 모습입니다. 본래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종교적 경건 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 율법을 준행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것을 깨우쳐 가르치는 일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타난 이들의 모습은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을 시험코자 하였습니다. 본문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 규범 가운데 하나인 결혼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더욱이 당시는 세례 요한이 헤롯왕의 재혼 문제를 비판하다가 죽임을 당했던 시기라서,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질문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곤경으로 몰아 넣으려고 하는 계획적인 시도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만의 고집과 판단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주님을 시험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 기도 /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주님을 시험하는 죄를 범치 않게 하소서. 김은태 선교사(중국)의 사역으로 중국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2 ...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 (19:21)

본문은 어떤 한 젊은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심각한 갈등을 겪는 모습을 기록하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대화를 나눈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더욱 심한 마음의 근심을 갖게 된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젊은이는 이 세상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생활 조건들을 풍족하게 갖추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높은 도덕적인 수준까지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물의 풍족함이나 고매한 도덕 수준을 가지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아와 얼마나 더 선한 일을 해야 할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주님은 가장 기본적인 십계명의 율법을 가르쳐 주셨고, 그것을 이미 잘 지키고 있다고 자부한 그 젊은이는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심각한 갈등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근심에 휩싸인 이유는 자신의 것을 포기함이 없이 영생이라는 더 큰 만족만을 누리하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도덕적인 판단과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기쁨을 생각해 볼 때 이 정도면 되지 않았겠는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나아갔다가 그 중심을 간파하신 주님의 호된 질책의 말씀에 그만 근심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그는 순종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심만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 기도 /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소서. 김영대 선교사(수단)가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또 내 이름을 위하여 ...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 ...』(19:29)

부자 청년이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자, 우리 주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같이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매우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축복받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은근히 자신이 그 부자 청년과는 달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좇았다는 것을 내세우면서, 자기와 같이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좇은 사람들은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은 주님께서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고 보좌에 앉으실 때에 주님과 함께 열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다스릴 것이며, 또 그들이 포기한 것을 여러 배로 받고, 또 영생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많으므로 자만하지 말라고 경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했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히려 교만해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우리는 항상 넘어질까 주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 기도 / 우리가 주를 위해 포기할 것을 포기하게 하시고,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유병새 평신도선교사(일본)의 사역으로 일본민족이 우상숭배가 헛되고 헛된 것임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 ...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20:14)

베드로가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자 주님께서서는 그의 자만을 경계해 주시려고 한 가지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그 비유의 주인공은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이었습니다. 그 주인은 제3시(9시), 제6시(12시), 제9시(오후 3시), 그리고 제11시(오후 5시)에 장터로 나가 놓고 있는 품꾼들을 만나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을 하고 포도원으로 보냈습니다.

저녁이 되어 품삯을 지불할 때가 되었습니다. 먼저 온 사람은 자기보다 나중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을 보고, 자기는 그 사람보다 더 받을 줄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주인은 그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품꾼은 어떻게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이 사람에게 하루 종일 수고한 자신들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돈을 줄 수 있느냐고 불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잘못된 일이 없었습니다. 먼저 온 사람은 자신이 약속한 대가를 충분히 받았습니니다. 그러나 주인이 보니 하루 종일 일없이 놀다가 온 사람들도 마땅히 적게 받아야 하지만, 자기를 기다리는 식구들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가야 했기 때문에, 그 주인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한 데나리온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주인이 선을 행한 것이지 결코 불의를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믿은 형제들에게도 먼저 믿은 자와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서는 베드로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 기도 / 우리가 은혜로 받은 구원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게 하소서. 김형선 평신도선교사(뉴질랜드)의 사역으로 유학생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소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20:28) 호...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자신의 제자들을 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자신은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질 것이며, 그들이 자신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자신을 이방인에게 넘겨주어 능욕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박게 할 것이나, 죽은 지 삼일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려고 하셨을 때, 예수님의 이모인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주님께 와서 자기 아들들을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로마를 무찌르고, 곧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부탁을 들으신 주님께서는 그들이 자신들이 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모르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들이 자신이 바라는 대로 주님의 좌우편에 앉기 위해서는 주님과 같은 고난과 순교의 길을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마실 수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주님께서도 그들이 나중에 변화를 받은 후에 순교의 잔을 마실 것임을 시인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실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시므로 우리 모두를 섬기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조금 더 낮아져야 합니다.

▶ 기도 / 우리에게 진심으로 낮아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이기성 평신도선교사(호주)의 사역으로 물질의 풍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소서.

『...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21:9)

주님의 일행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는 감람산 벳바게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주님은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맞은편 마을로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매여 있을 터인데, 그 나귀를 끌어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무슨 말을 하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보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된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취하신 일이었습니다. 이미 선지자 스가랴는 메시아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온 인류의 왕으로 오시는 이는 말을 타도 가장 좋은 백마를 타셔야 할 것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서는 멩에를 메는 나귀를 타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왕이긴 왕이시나 다른 왕들과 같은 교만하고 주장하는 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시는 겸손하신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귀를 끌어다가 그 등에 자신들의 옷을 덮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서는 그 위에 타셨으며, 사람들은 길에 옷과 나뭇가지를 깔고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오시는 겸손하신 왕'을 찬양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온 성이 소동하였으며, 사람들은 이 사람이 누구기에 이렇게 소동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 사람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선지자로만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나귀를 타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 기도 /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날마다 겸손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소서. 고은빈 평신도선교사(케냐)가 전개하는 어린이 선교 사역이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소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21:22)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들은 아이들이었습니다. 비록 아이들이 그 의미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주님을 “호산나” 하면서 찬양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호산나의 뜻은 “지금 구원 하소서” 이기에, 이 말은 그 시대를 구원할 메시야에 대한 칭송의 기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인생들을 구원해달라는 기도의 집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 의미를 짓밟은 채, 성전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주님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 높인 어린이들의 찬양의 기도를 통해 참된 신앙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 밖 베다니로 나오실 때에 일어난 무화과나무의 사건도 순수한 믿음의 기도에 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아무런 열매도 맺지 않은 무화과나무는 주님의 말씀 한 마디로 곧 시들어버렸습니다. 이 나무는 열매맺지 못하는 잎만 무성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들어버린 나무를 통해서 주님은 참된 믿음의 기도가 있다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지울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시들어버린 무화과나무와 같은 세상, 그리고 참된 믿음의 기도가 없는 세상을 보시면서 주님은 안타깝게 생각하셨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 그리고 믿음의 기도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기도/ 믿음의 기도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게 하소서. 김철영 평신도 선교사(일본)의 사역으로 소수 교인으로 만족하는 일본교회가 더욱 부흥하게 하소서.

? ...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 열매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21:43)

이 세상과 오는 세상(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구이겠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주인이심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권세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그 권위를 의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들을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자들이 누구인가를 두 개의 비유를 통해 말씀해주셨습니다.

첫번째 비유는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앞에서는 말을 듣는 척해도 행하지 않았던 아들과 비록 아버지의 말을 거절했어도 후에는 뉘우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아들! 과연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자이겠습니까? 주님은 과거의 혈통이나 신분이 중요하지 않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신분이 세리와 창기일지라도 그 속에 믿음이 있다면, 곧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비유는 악한 농부에 관한 비유였습니다. 악한 농부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망각하고 포도원을 송두리채 삼키려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이고, 심지어는 그 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였습니다. 우리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죽인 농부들은 당시의 유대인들이요, 오늘날 주님을 거역하는 인생들일 것입니다. 이 세상의 참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참 신자로 여기십니까? 이것을 생각하며,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참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 기도 / 온 땅과 만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한에 남아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의 용기를 잃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소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22:2)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들은 바로 주님이시요, 그 임금은 하나님입니다. 이 비유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그 아들(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잔치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셨습니다. 하지만 본래가 청함 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감히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 누구든지 그 잔치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결론은 매우 슬픈 모습으로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 각각 흠어지면서 아무도 잔치에 오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잔치는 아들을 위한 임금의 사랑으로 인하여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잔치에 참여하게 되지만, 그 가운데도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 그들은 다시 쫓겨나는 슬픔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이 비유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잔치에 참여하려면 누구든지 그 잔치에서 준비한 예복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복이 아들의 피로 씻겨진 옷이요, 그 아들의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는 믿음의 옷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복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옷은 오직 택함받은 백성들만 입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 자체가 우리의 패역한 심성으로는 불가능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주님의 보혈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감사하며 경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기도 / 구원하신 하나님, 천국잔치를 소망하며 기쁨으로 살게 하소서.
제2교육관 공사가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진행되게 하소서.

? ...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 (22:32)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납세 문제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질문이었고, 둘째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시두개인들의 부활 논쟁이었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 질문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불순한 동기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정치성을 띤 문제였으며, 다른 하나는 교리적인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명쾌한 답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첫째로 사람들은 세금의 의무를 이행해야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에 의해 통제되어야 했습니다. 법과 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있는 정부에 세를 바치듯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방해할 수도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 만일 과거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끝이 아니라 빗장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하나의 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영원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의미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 어떤 의무를 감당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원히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 기도 / 오늘도 산 자의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며 하루를 충실하게 감당케 하소서. 7월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8월에도 인도하심으로 함께 하소서.

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성경봉독		사회자와 교독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적합합니다.
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 27 과

성령으로 나신 예수 - 동정녀 탄생

읽을 말씀 / 마태복음 1장 18-25절
역대상 29장 11-12절
찬 송 / 93장, 177장

예수님을 보는 관점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일생에 대하여 다분히 선포적이며,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와 부활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전통은 예수님의 생애를 탄생, 십자가, 부활만을 언급하고 있음은 예수께서 보이신 모든 행적이라는 것이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한 서론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봉사 생활은 중요시 하지 않고 십자가 수난과 부활을 강조한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이어가야 할 신앙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향한 일생으로 주님의 삶을 해석하는 것이 바른 해석 방법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법을 초대교회적인 신앙이라고 합니다.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의문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의구심을 불러 왔습니다. 이것은 비과학적인 사건임을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은 과학적인 사실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신 주님이 육체로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동정녀 탄생을 못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성육신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아님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분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만이 죽을 수 있고,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의 죽음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1.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의 증거를 살펴봅시다.

1)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미가서 5장 2절; 누가복음 1장 34, 35절; 갈라디아서 4장 4절 등을 통하여 영감받은 선지자와 사도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2) 마태복음 1장 16절; 누가복음 3장 23절;

3) 누가복음 1장 31-38절;

4)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는 성령님이 증거하고 계십니다.

5) 마태복음 1장 19,20절에서 약혼자 요셉의 고민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6) 마태복음 1장 20,21절;

7) 누가복음 2장 48,49절; 마태복음 26장 63-66절;

2. 동정녀 탄생의 의의는 무엇입니까?

1)

2)

주님은 영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통하여 어린이로 나시고 어른으로 성장하셨습니다. 여자의 몸을 통하여 태어나심으로 참 사람이심을 입증하게 됩니다. 그러나 원죄없이 나셔야 구주가 되시겠기에 이 방법을 쓰신 것입니다. 만일 자연 생산법대로 - 즉, 남성의 간섭으로 태어나셨더라면 그도 죄인이 되고 마는 것이니 인류의 구주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도성인신(道成人身)

하나님이 인간되어 오셨다는 뜻과

하나님이 역사 속에 오셨음을 의미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적 관계를 갖기 위하여

인간문화의 옷을 입고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큰 사람이 작아지는 것은 불편을 넘어서 회생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과 대화를 하자면 대화하려는 사람이 그 위치로 들어가야 합니다. 대화에서 편안한 마음을 갖도록 하려고 죄 없으신 주님이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동정녀의 몸을 빌려 인간이 되시어 오신 것입니다.

제 28 과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심

읽을 말씀 / 요한복음 19장 17 - 30절

찬 송 / 91장, 367장

당시의 정치적 상황

- 1) 로마의 식민지 통치 방법은 13명의 총독이 황제를 대리하여 통치하고 각시민 국가마다 왕을 인정하여 자치권을 주되 로마 황제의 승인으로 즉위하여 절대 복종하게 하였습니다.
- 2) 세금을 거두어 로마로 거두어 자치권을 이루고 일정액을 로마로 보냅니다.
- 3) 유대는 72인 산헤드린 공회가 종교와 정치에 권한을 행사하였습니다.
- 4) 사형의 최종 결정권은 총독에게만 부여 하였습니다.

빌라도의 재판

사도 신경에서 예수 외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지방을 다스리는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이었습니다. 그는 주후 26-36년 사이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총독부 본부를 두고 시리아 총독 (지금의 팔레스틴 전부의 명칭)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전후하여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풍문으로 임시 사령부를 옮겨 놓은 때에 예수님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에는 예수를 체포하여 집요하게 사형으로 유도한 대제사장 가야바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의 무죄를 알고 방면하려 했습니다(요 18:). 그러나 부인이 간밤에 꿈이 나쁘니 재판을 조심하라고 전갈했음에도 부인의 말을 듣지 않고 사형을 선고하여 불명예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무죄한 예수를 죽도록 내어준 이유는 시민들의 동요에 대한 작은 불안 때문이었습니다(요 19:8).

1. 빌라도는 예수님께서서 무죄하시다는 것을 알았지만 왜 십자가에 못박아야만 했습니까?

정치적 타협 - 무죄인 예수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은 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타협이었습니다. 자신의 총독직 유지를 위해 제사장과 산헤드린의 요구를 들어주려던 차에 예수의 재판이 있게 되자 사형을 선고 하였으니 빌라도의 정치적 야망의 희생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2.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붙인 죄명은 무엇입니까?(마태복음 27장 37절; 요한복음 19장 19절)

예수께서 정치적 왕이 아님을 알면서도 이를 강조하여 양심의 가책을 억제하고 사형의 근거를 확보하려 했습니다. 죄 없음에도 총독의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 즉 자신이 살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빌라도는 지금도 못 사람의 입에 오르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잘못된 판결이 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고백이 되었을까요?

초대교회는 엄청난 박해와 이단들의 난무와 교회의 혼란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억울한 정죄로 신앙의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박해로 인한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요, 억울한 정죄는 언젠가 밝혀지리니 진리를 포기하지 말고 묵묵히 견디어 가는 것을 귀중한 신앙의 덕목으로 고백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3. 만일 내가 빌라도의 자리에 섰다면 어떤 결정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어떻게 할까?”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못 박히실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산으로 나가시던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빌라도를 통하여 다시 질

문하시고 계십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에서 항상 생각하고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이기어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우
리가 되어야 합니다. 일시 어두움이 이기는 것같이 보일 때도 있습
니다. 이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
야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제 29 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읽을 말씀 / 마태복음 27장 45-50절

찬 송 / 94장, 471장

1. 십자가 사건의 중요성

- 1) 기독교의 근본적인 관심은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영원히 죽느냐?에 있습니다. 이 생명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오셨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 2) 십자가 사건의 중요성은 죄값으로 처형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처형하기 위한 수단이며 그 중에서도 가장 잔인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 당할 수밖에 없었던 죄란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 3)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오해를 일으켜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미리 아셨고 예고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만찬에서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를 흘리며 살을 떼다”고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일생과 연결하여 생각하여야 합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전생애를 일관한 고난의 절정입니다.

※ 십자가형의 단계 ※

- 1) 끝 부분은 쇠갈퀴가 달린 가죽채찍으로 매를 맞고 죄인이 직접 무거운 형틀을 메고 가야 합니다.
- 2) 옷을 벗겨 아주 부끄럽게 만든 후, 독주를 주어 술 기운으로 고통을 조금 잊으라는 '로마식의 긍휼'을 베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맑은 정신으로 감수 하셨습니다.
- 3) 형장에 가서 손과 발에 못을 박고 곧 바로 십자가를 세웁니다.
- 4) 죽었다고 생각되면 가사(假死)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 보고 무릎을 꺾어 버린 후 시체를 까마귀가 파 먹도록 방치합니다.

2. 부활의 사실성과 중요성

타종교는 생의 의미를 찾지만 기독교는 부활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기독교는 인생을 허무라고 보는 입장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며 삶의 지혜를 얻으려는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은 죽음에 대한 자세를 바로 가져서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겨야 합니다. 부활의 중언이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려 하지 않고 다만 부활이 분명하기 때문에 확실한 사실을 그대로 쉽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

로가 구약성경을 인용하여 예언한 대로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밝히면서 우리가 증인이라고 분명히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예고된 것이듯이 부활 역시 예고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역동적인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생명력이 있는 것이며 우리는 그 증인들입니다. 로마가 신성 로마제국으로 대체되고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로서 전 세계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바로 부활이 확실하다는 증거입니다.

부활의 증거를 몇 가지 찾아보도록 합니다.

1) 사도행전 26장 26절

2) 누가복음 24장 1-3절

3) 로마서 6장 23절

그러나 가장 큰 증거는 제자들의 생활의 변화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순교의 역사입니다. 죽은 다음의 생명을 분명히 믿은 제자들이 순교의 잔을 마신 뒤, 위대한 신앙인들은 순교의 길을 기쁨으로 알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이보다 확실한 증거를 제시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삶들은 부활을 증거하였고(행 4:2), 베드로는 부활을 말하지 말라는 사두개인들에게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 중에 어느 것을 듣겠느냐고 반문하였습니다.(행 2:14-36) 베드로의 설교 내용도 오직 부활하신 주님을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아니

증거하기 전에 나 자신이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정립

- 1) 주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고 일컬음을 받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2)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증거합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표현이며 부활은 사랑의 확증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신 능력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 3)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영생과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에게서 나의 부활로 이루어집니다.



MEMO

가정예배 안내

■ 예배 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 낭독	
기 도	 다 같이
주 기도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